

## 비전 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A Study on Vitalization of Mission in Military Through Vision Camp)

한생현 군종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목회상담(Th.D)
- 국군 의무사령부 베데스다교회 담임

### 1. 상황 분석(Situation Analysis)

#### 1) 현재 상황

청년 시절 군대에서의 기간은 짧고도 긴 그야말로 광야생활과 같은 기간이다. 고향과 아버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아브라함과 같이 무작정 조국의 부름으로 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이런 환경적 요인 말고도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같은 또래 동료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개인의 내적인 문제들이다. 이것은 복무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나중에는 자살사고 등을 야기해 부대에 많은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는 이런 병사 각각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적 돌봄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내할 자원도 없다. 여기에 비전 캠프의 필요성이 생긴다.

사실 비전 캠프는 그 태동에 있어서 그 동안 군종 목사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자살예방과 부적응자를 선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해 왔던 프로그램의 최초 표준적이고, 공식화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대에서의 바람과 군종 목사들의 열심이 만든 합작품이다. 2003년부터 실시 이후에 작년까지 2,083회 41,663명이 입소 수료하였다.<sup>1)</sup> 물론 여기에는 함께 참여했던 도우미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복무부적응 등 관심병사와 자살 우려자 대상으로 이렇게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다. 또한 비전 캠프는 입소자들에게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돕고, 왜곡된 인식체계를 전환함으로 군내 자살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전 캠프 입소자 중 약 87%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대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sup>2)</sup>

그러나 비전 캠프를 점차 진행하면서 일부는 매너리즘에 빠져 식상해 하거나, 또 하나의 부대업무를 해치우는 식으로 실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에게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래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과 씨름하는 것은 군종 목사의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요 10:10). 교회의 사명은 개인의 내적 문제이든 개인이 처한 환경의 문제이든 예수님과의 만남을

1) 육본 군종실에서 파악한 작년까지의 통계숫자임.

2) 육본 군종실의 “2008년 비전 캠프 성과분석 회의자료”에서 2004~2008년 5개년간 결과를 평균한 수치임.

통한 치유와 회복에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마음이 평안케 되며 삶이 풍성해지는 데 있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부대는 이들을 격려하고, 포근히 감싸 주거나 지지해 주는 분위기가 안 된다. 조직의 특성상 과업중심이고 지시중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좀 더 크게 보면 비전 캠프는 오히려 군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군대라는 특수집단은 한 인격체로서 사람보다는 계급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대할 때가 많다. 이것은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 군인 교회의 특성상 아주 오래 전부터 병사 중심의 하부지향적 사역이 아니라 간부 및 가족 중심의 상부지향적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계급이 낮은 병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방인처럼 대하게 되었고, 부대에서 부적응하거나 신앙적으로 뒤처지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 울타리를 낮춰 친밀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나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지지해 주며 세워 주고 무거운 짐은 서로 같이 나눠 지며 걸어가는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다.

또한 군인 교회는 거의 모든 일을 목사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 목사는 탈진하고, 평신도들은 사역에 무관심하였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잘못된 구조다. 교회의 목사는 경기장의 감독이나 코치로서 역할을 하고, 평신도들이 선수가 되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6-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라”(개역개정)고 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비전 캠프를 단순히 목사 혼자만의 업무가 아닌 평신도도 참여시키는 교회적인 선교 프로그램으로 그 지평을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평신도로서 목회자를 도와 기쁨으로 치유사역을 하는 것은 특별히 군인 교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환경 자체가 상처를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모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 일은 목회자의 비전과 평신도의 열정으로 행해야 할 팀 사역이다.

## 2) 도전과 장애 요소

군대는 특수한 목적을 띤 조직집단이다. 그러기에 안정적 부대 분위기와 높은 사기는 집단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군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그가 속한 부대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2007년 육군 통계에 의하면 68명의 병사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71%나 된다.<sup>3)</sup> 결국 병사들이 24시간 생활하는 부대가 평안하고 정상적인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근무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고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병사들을 철저히 관리하며 개별적인 목회상담적 돌봄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

3) 육군 군종실에서 발행한 “군종장교 자살예방활동 지원 교안”(2008).

따라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인들이 비전 캠프를 통하여 부정적인 병사를 치유하고 돌보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자 교회 활성화 위한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곧 떠나갈 교회이고, 동시에 부적응자 대부분이 병사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 쓴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다.

그리고 비전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신도 사역자들과 도우미들의 헌신적인 섬김의 자세와 자질이 문제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초한 기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와 상담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부대에 군종 목사 단독으로 보직되어 활동하는 부대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경우 군 안에는 다른 종파 군종 장교도 보직되어 있으니 부대 사정에 맞게 부대와 타 종파 군종 장교들과 협조하여 지혜롭게 실시해야 한다.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조금 순화해서 실시하면 좋겠다.

## 2. 연구 조사(Research)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교회의 본질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고 해도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요, 또한 비전 캠프를 통한 군선교 활성화가 하나님의 사역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1) 교회의 본질

#### (1)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

교회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구약의 용어에는 ‘카할(qahal)’과 ‘에다(edhah)’가 있다. ‘카할’은 ‘부른다’라는 말에서 온 말로 ‘무엇을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고,<sup>4)</sup> ‘에다’라는 말은 ‘택한다’라는 의미가 강하여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말이다.<sup>5)</sup> ‘카할’과 ‘에다’는 70인역(LXX)의 처음 부분에는 다같이 공회(synagogue)를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었으나 나중 부분에는 ‘카할’은 ‘에클레시아’ 즉 이스라엘인의 모임(공동체)으로, ‘에다’는 ‘쉬나고게’ 즉 모이는 장소의 개념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말로 번역되어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모임과 그 장소를 나타내게 되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주로 ‘에클레시아(ecclesia)’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는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에 응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신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한다.<sup>6)</sup> 원래 이 말이 헬라세계에서 쓰여질 때는 ‘전령관에 의해서 불려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로 정치적 집회를 의미하였지 신성한 종교집회는 아니었다.<sup>7)</sup> 그러나 초대교회는 구약의 ‘카할’을 번역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용어로 받아들임으로써, 의식적으로 참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공동체,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

4) 이종성,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p. 41.

5) 위의 책, p. 20.

6)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 272.

7) Hans Küng, *Was ist Kirch?*,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왜관: 분도출판사, 1994), p. 63.

임이 되었다.<sup>8)</sup>

위의 교회라는 단어 연구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참다운 에클레시아가 형성된다.<sup>9)</sup> 따라서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부름 받은 종된 백성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2) 자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사역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교회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애버리 둘리스(Avery Dulles)는 《교회의 모델》(*Models of the Church*)에서 전통적인 다섯 가지의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성례전으로서의 교회, 말씀의 사도로서의 교회, 섬기는 종으로서의 교회이다.<sup>10)</sup>

그러나 이 모델들은 독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 모델들 하나 하나는 각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어느 한 요소 또는 한 가지 차원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교회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으며 제도가 없는 교회는 몸이 없는 정신과 같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도 속에 말씀이 갇히고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와서 개발된 교회의 모델들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 약한 자들과 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모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

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관심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 관심에서 또 다른 교회 모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과 선교의 제3의 천년시대(third millennium)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sup>11)</sup>

성경적인 교회상의 중심은 자비의 공동체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compassion)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고난당한 자들의 이웃이요, 친구요, 구원자이시다. 오늘 이 시대에 자비는 낯선 단어가 되고 사람들은 이웃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는 무정함으로 가득하나 교회는 아직도 사랑의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시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에 사랑의 영을 부어 주어 이 사회의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만드신다.

자비는 슬픔과 고난과 상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고난 받는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나약함, 두려움, 혼란, 고민 등을 함께 나누시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신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상처의 흔적을 가진 자요, 버림받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동기를 부여받는다.

교회는 자비를 중심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므로 자비는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이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이미지요, 현대 이기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이다. 특히 계급과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한 신상필벌이 냉정하리만치 시

8) 위의 책, p. 64.

9) 이종성, 《교회론》, p. 41.

10) 오성준, 《신학·영성·목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p. 77.

11) Donald E. Messer, *Contemporary Images of Christian Ministry*, 이면주 역, 《새시대 새목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p. 120.

행되는 군대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자비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머니 품과 같아서 장병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이 된다.

폴리캅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비 공동체로서 교회의 비전에 근거한 교역자의 사명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장로들은 (오늘의 목회자들) 부드러운 가슴을 가져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우며,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애쓰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등을 무시하지 않으며, 모든 분노를 버리며……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어떤 사람의 잘못된 소문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가혹한 판단과 심판을 삼가며,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빛진 자임을 기억하여야 한다.<sup>12)</sup>

폭스(Matthew Fox)는 교회와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성의 핵심을 자비라고 주장한다.<sup>13)</sup>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 자비의 모델이요,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이 곧 영성이다. 자비의 영성은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 자비의 영성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삶의 영성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영성은 유대·기독교적 전통보다는 헬라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아 왔다. 그래서 자비와 공감의 관계적 삶보다는 묵상과 관상(觀相, contemplation)의 개인주의 영성이 중심이 되어 왔다. 예수님은 자비를 동사로 바꾸어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적인 영성으로 바꾸었다. 자비는 언제든지 관계적이요, 실천적이요, 행동적이다.<sup>14)</sup>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영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교회

는 자비의 영성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몸인 교회로부터 자기 기능과 삶과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자비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자비의 영성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머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난당하는 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 상처의 흔적들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는 상처의 사람으로 그 상처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으며, 그 상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예수님의 상처는 곧 우리를 구원하는 자비의 도구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상처도 그리스도의 자비의 도구가 되며, 자비 실천의 변화를 제공한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상처의 사람들 옆에 계시며, 상처 입은 자를 변화시켜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신다. 상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생명과 구원을 전달하는 자비의 통로로 삼으신다.<sup>15)</sup>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요일 4:19).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기적인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자비의 목회를 수행할 수 있다.

12) 위의 책, p. 123에서 재인용.

13) Matthew Fox, *A Spirituality Named Compassion and the Healing of the Global Village* (Minneapolis: Winston Press, 1979), p. 27.

14) 오성춘, 《신학·영성·목회》, p. 90.

15) 위의 책.

## 2) 치유란 무엇인가?

비전 캠프는 입소 병사들의 치유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치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 (1) 치유에 대한 어원적 고찰

구약성경에서 치유하는 의미의 단어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라파(רפ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세분시켜 볼 수 있다. ‘상처를 고치다’, ‘치료하다’ (창 22:17; 욥 5:18), ‘하나님이 치료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대하 7:15)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다.<sup>16)</sup>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치유에 관한 어의는 더욱 풍부하다.

먼저, 치료 또는 요법(therapy)의 어근이 되는 데라페이아(θεραπεία)는 현대 정신 치료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봉사’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필로, 요세푸스 등의 저서에서 발견되는데, 의미는 개인적이며 친밀한 방식으로 주의 깊게 보살피 주는 봉사요, 사려 깊고 꼼꼼하며 양심적인 보살핌을 의미한다.<sup>17)</sup>

다음으로 아이아오마이(ἰάομαι)다. ‘치료하다, 병을 고치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희랍어 용법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처럼 그 단어는 도덕적인 상처나 질병의 치료에까지 그 용법이 확장될 수 있었다. 실제로 희랍어에만 생각할 경우에 이 단어는 이 고전적인 용법에서 특수하게 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죄 그 자체는 질병으로 알려진 별개의 독특한 조건(육체적, 정신적)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질병으로 파악된다.

16) 교영민, 《성서원어대사전》(서울: 교문사, 1984), p. 360.

17) Thomas C. Oden, *Kerygma and Counseling*, 이기춘, 김성민 역, 《케리그마와 상담》(서울: 전망사, 1983), pp. 66-67.

또 하나의 단어는 소조(σώζω)다.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지키다, 구제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고전 희랍어에서 의료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된다. 이 단어는 치료의 의미를, 한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희랍의 개념 가운데서는 몸을 구원하는 것이 중도에 전 존재의 구원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의미상으로 완전한 구원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 단어로부터 신학적인 용어인 구원론(Soteriology)이라는 말이 유래한다.<sup>18)</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약성경은 ‘치유하다(θεραπεύειν)’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한다. ‘치유하다’는 희랍 세계 속에서 비종교적인 의미로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역에서 사용되어진 치유는 복음 전파의 가르침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다. 신약성경 안에서 데라퓨에인(θεραπεύειν)은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는 의학적 치료로써가 아니라 참된 치료를 묘사하고 있다.<sup>19)</sup>

### (2) 치유의 의미

그럼,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healing)라 함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치유는 육체와 마음의 병적 상태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히브리어의 건강을 의미하는 낱말 샬롬(שָׁלוֹם, shalom)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인데, 이것은 육체와 마음의 조화를 가르친다.<sup>20)</sup> 그러므로 치유는 기능적 전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18) Morton Kelsey, *Healing and Christianity*, 배상진 역, 《치유와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pp. 121-122.

19) H. W. Beyer,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 T.*, 3vols, ed. by G. Kittel and G. Friedrich(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1974), p. 128, 20) 오성춘, 《신학·영성·목회》, p. 330.



다. 이것은 손상되고, 파괴된 인간들을 전체성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회복은 옛날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상태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 통찰력과 복지를 성취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sup>21)</sup>

투르니어(Tournier)는 진정한 치유란 단지 질병의 회복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회복 이후 계속적인 삶의 자세까지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의 삶을 사는 것을 완전한 치유로 보고 있다. 그는 회복된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건강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sup>22)</sup>

힐트너(Hiltner)는 “치유란 단지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만으로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다. 치유란 온전하게 만드는 일, 다시 회복하는 일을 말한다. 방향이나 스케줄에서 손상(병) 입었던 기능적 불완전성을 다시 회복하여 회복 이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sup>23)</sup>

블룸할트(Christion Blumhalt)는 허다한 질병의 원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sup>24)</sup> 하면서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인간은 영적인 삶이 내재하고 있으며 영적인 삶이 손상되고 타락하여 여러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징조가 된다.

폴 티리히(Paul Tillich)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치료이다. 다시 말하면 파괴되고 와해되어진 것을 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다”<sup>25)</sup>라고 말했다. 그는 질병 자체보다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자 내부의 내적인 책임과 환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영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질병에서의 치료와 영적인 죄악에서의 구원을 말하며, 그리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상호의존적인 삶의 차원을 여섯 개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즉, 다섯 가지 수평적인 삶의 차원과 ① 정신·정서적 차원 ② 몸의 차원 ③ 이웃과의 관계적 차원 ④ 사회적 삶의 차원 ⑤ 자연과의 관계적 차원, 수직적인 차원으로 ⑥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영적인) 차원이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다섯 가지 차원의 수평적 삶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결함은 다른 차원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한 차원의 치유가 다른 차원의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때문에 목회자는 인간의 전인적인 치유(건강)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때의 핵심은 영적인 차원에 중심을 둔 치유여야 한다.<sup>26)</sup>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창 1:26). 이 말은 곧 치유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혹은 사회적인 질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는 온전히 만드는 일, 다시 회복하는 일을 말한다. 즉 치유는 생의 위기나, 전기 또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도덕적 결함을 고치며, 본성적, 후천적 모든 결함이나 와해 등을 회복시키며, 완전케 하고, 유지하며 인도하는 총체라고 하겠다.

21) Seward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p. 117.

22) Paul Tournier, *A Doctors Case Book in the Light of Bible*, 마경일 역, 《성서와 의학》(서울: 전망사, 1978), p. 219.

23) Seward Hiltner, 《목회신학원론》, p. 117.

24) Edward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목회학 원론》(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p. 74.

25) 오성준, *op. cit.*, p. 332에서 재인용.

26) 위의 책, pp. 333-334.

### (3)치유의 성경적 근거

#### ① 구약성경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숨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며 이 관계의 회복을 꾀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과 질병에서 인간을 치유해 내시는 최초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다.<sup>27)</sup>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들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의 불임을 치유하여 생산케 하셨다.<sup>28)</sup>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죽은 후 구스(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이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렸고 7일간 격리된 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았다(1-15절).

그 외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8-14절), 민수기 16장의 회중의 원망함으로 백성 중에 었병이 시작될 때 아론의 기도로 었병이 그친 사건(41-50절),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4-9절),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가 자신을 공개한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17-24절), 열왕기하 4장의 수넵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아들을 살린 일(32-37절) 등이 있다. 이어서 특히, 신명기 32장 39절은 구약 대부분의 기본적 태도를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27) 출 15:26.

28) 창 20:17-18.

구약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sup>29)</sup> 심지어는 의료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견해들조차도 다른 민족들에게서 발견되는 견해들과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달랐다. 또한 구약성경에서의 치유의 약속은 신약성경과 분리되지 않고 예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단 놋뱀(민 21:4-9)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극명히 드러났으며(요 3:14),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고난의 종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사 53:5)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신 예수의 고난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구약의 치유사건을 통해서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의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이 나타나 있는 뚜렷한 구원의 징표였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그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기적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과 함께하신다는 표적이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아울러 치유 목회에도 깊이 관여하였음을 본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들도 문제를 가진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며 위로해야 한다.

#### ② 신약성경

신약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많은 치유의 사역이 나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의 역

29)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사도 아울러 일어났다. 예수는 두 가지 동기에서 치유 사역을 실행하셨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목자로서 양에 대한 민망히 여기심 때문이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으로 일관하게 나타난다.<sup>30)</sup> 또한 복음서는 예수 인격의 임재로 치유 이적 등의 표적을 말씀의 선포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셨다. 즉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그것인데 고통이나 질병, 죽음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침입한 침입자들로서 사단의 왕국에 속하는 것으로 보신 것이다.<sup>31)</sup>

또 다른 동기는 '민망히 여기심'이다. 마태복음 9장 35-36절의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는 말씀에 인간에 대한 예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예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치유의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sup>32)</sup>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 아파하셨고, 침을 뱉으사 병자의 환부에 직접 바르시며 따뜻한 손길로 병자를 만지시며 치료하시기도 하셨으며,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참된 치료자이셨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지니고 계셨으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었다.<sup>33)</sup> 예수께서 지니신 동정심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었다.<sup>34)</sup> 그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30) 눅 4:18.

31) 김연수, “하나님의 왕국과 치유선교”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8), pp. 42-44.

32) 위의 논문, pp. 43-44.

33) 마 14:14, 20:34; 눅 7:13.

34) Morton T. Kelsey, 《治療와 基督教》, p. 101.

푸시거나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채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으셨다. 그는 질병에 항거하셨는데 이는 질병이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치유목회 는 예수의 성육신의 결과다.<sup>35)</sup> 완전하신 하나님이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예수의 치유 행위는 그의 동정을 나타내는 자발적인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암시하는 징표였지 치료기법의 임상적인 시범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치유 사역에는 전인적 회복을 겨냥한 심리적이며 동시에 중대한 영적 배려가 짙게 깔려 있었고, 과학적이면서도 초자연적 능력을 통합한 치유의 활동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속죄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전인적인 치유의 대속이다.

#### (4) 치유의 교회사적 근거

교회사 속에서 치유의 사역 흐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죄와 관련하여 영적 치유가 많이 유행하였지만 후기에 가서는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개혁자들이 가톨릭 치유의 잘못된 사역을 비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저스틴 마터(Justine Marter)는 강조하기를 기독교인들 중 성령의 역사가 다방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치유를 영적인 은사로 받아들이는데,<sup>36)</sup> 사도시대뿐만이 아니고 고대 교부에게도 주어진 영적인 은사를 생

35) 위의 책.

각했었다.

터툴리안(Tertulian)은 당대의 놀라운 저술가인데, 그의 저서 《To Scapula》에서 평민들은 물론 수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한다.<sup>37)</sup> 그는 그의 저서 중 《On the Resurrection of the Flesh》에서 주장하기를 육체는 영속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로부터 하나의 부활한 형태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씨앗이 움이 트고 자라서 식물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기독교적 치유를 위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터툴리안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치유의 힘을 믿었던 것이다.<sup>38)</sup>

오리겐(Origen)은 이집트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생을 기독교 서적을 집필하는 데 온 정력을 쏟아 바친 사람이다. 그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제거하고 귀신을 추방하며 질병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대 교부 시대에도 치유 목회가 행하여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sup>39)</sup>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미 그들과 같이 살지 않은 고대 교부시대에도 역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고대 교부시대에도 역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

많은 사람들은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그때에 가톨릭 교회가 서구 시대를 지배하였고, 교회는 모든 삶의 중심지였다. 암흑기라

고 하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그의 사역을 계속하였고 그중에 치유사역도 예외는 아니었다.<sup>40)</sup>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치유 목회를 한 사람이다. 그는 절름발이, 중풍, 귀신들린 자, 병어리, 문둥병을 고쳐 주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일으켰다. 다만 다른 시대에 비하여 개혁자들에 의한 강조가 덜된 것뿐이지 결코 치유사역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마틴 루터(M. Luther)는 초기에는 치유의 사역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체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치유의 기적을 인정했다.<sup>41)</sup> 루터가 치유의 기적을 부인한 것처럼 보인 점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터무니없이 비성경적인 것을 유포시키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발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sup>42)</sup>

존 칼빈(John Calvin)은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였고 가톨릭의 치유 기적에 대하여 무엇인가 그릇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힘을 믿었다.<sup>43)</sup> 그는 치유의 시대가 지났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성경을 지적하여 말하지는 못했다. 그가 이처럼 치유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여러 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와서는 고든(A. J. Gordon)은 말하기를 왈드파(Waldeness), 모라비안 교도들(Moravians), 유그노들(Huguenotes), 언약교도들(Covenants), 친구파(Friends), 감리교도들(Methodists) 등 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그들대로 치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sup>44)</sup>

36) Vincent Edmund and Scorer Grodon, *Some Thoughts on Faith Healing* (London: The Tyndale Press, 1965), p. 31.

37) John Wimber, *A Brief Sketch of Signs and Wonders through out the Church Age* (Plentia: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 1984), p. 6.

38) Morton T. Kelsey, 《*치료와 기독교*》, pp. 155-56.

39) 위의 책, p. 163.

40) 김현석, “목회자의 치유적 사역에 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1988), p. 55.

41) A. J. Gordon, *The Ministry of Healing* (Harrisburg & Christian Publication, Inc., 1961), p. 92.

42) 위의 책, p. 93.

43) 김현석, “목회자의 치유적 사역에 관한 연구”, p. 58.

44) A. J. Gordon, *op. cit.*, p. 64.

오늘의 시대에 와서는 교회의 치유 사역들이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 켈시(M. T. Kelsey)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치유에 대하여 전과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 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첫째, 신관과 인간관이 미묘하게도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서구세계 문명의 퇴보와도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신학적 사고의 변천 때문이다. 플라톤의 세계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 의해서 대치되어 신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이성주의적 관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설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 셋째는 이 기간 동안에 미신적인 신앙이 치유의 역사를 지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으로서 치유 역사도 오해를 받아 함께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전인적 구원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예수 이후 사도시대, 교부시대, 종교개혁과 오늘에 이르러 교회의 치유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교회는 분명히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복음 전하는 곳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성적인 신학 사고와 잘못된 치유 사상으로 인하여 그 맥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려면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3. 변화이론(Change Theory)

본 장에서는 타개책의 이론적 틀을 세우는 부분으로써, 먼저 전공변화

45) Morton T. Kelsey, 《治療와 基督教》, p. 20.

이론으로 집단상담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구조변화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변화이론: 집단상담

##### (1) 집단상담의 개념

비전 캠프는 집단상담 치유방법이다. 그럼, 과연 집단상담이란 무엇인가? 집단상담은 문제해결과 인간발달을 위한 상담의 집단적 접근이다. 우선 집단상담에서의 ‘집단’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집단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집단상담에서의 ‘집단’은 개인들의 집합체로서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집단을 말한다.

이형득은 집단상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46)</sup>

첫째, 집단상담의 대상은 비교적 정상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이다. 즉 정신병자, 신경증 환자 혹은 기타의 성격장애자들은 집단상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주로 취급되는 문제는 성격 구조의 변화나 심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문제들, 또는 정상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이다. 그리고 취급되는 문제는 주로 내상담자가 자의로 제출하는 것에만 한하고, 상담자에 의한 해석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주 강조점이 치료보다는 성장과 적응에 주어진다.

둘째,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로 개인상담에 성공적인 경험, 성격의 역동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집단역학에 관한 올바른 이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능력들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상담의 능력이 곧 집단상담 전문가의 능력을 말해 주는 것은 아

46)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pp. 17-18.

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보다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한 집단을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지도자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지도자는 집단의 역학을 관찰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담집단의 분위기는 신뢰할 만하고 수용적이어야 한다. 의미 있는 성장 혹은 행동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성원들이 그의 속성에 상관없이 하나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성원 상호간의 무조건적 수용은 효과적인 집단상담의 필수조건이다.

넷째, 집단상담은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따라서 집단상담은 집단성원 상호간의 계속적인 관계의 과정으로서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개인은 학습하고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집단상담은 적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학을 토대로 하여 신뢰할 만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성장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집단상담의 신학적 근거

### ① 집단상담의 성경적 근거

#### i. 구약에 나타난 집단상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집단상담의 원형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와 역할들을 가진 소집단을 찾아볼 수 있다. 소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에텐 동산인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공동체, 즉 소집단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최초의 소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만들어 가실 공동체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홀로 만드신 후 소집단 공동체가 필요함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sup>47)</sup> 결국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으로 구성된 소집단은 하나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별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서로 하나 됨을 깊이 인식하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하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다. 또한 그들이 낳은 최초의 자녀들은 깨어진 관계들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셔야 했다. 이처럼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소집단이란 타락 전 에텐 동산의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로 맺어진 친밀 공동체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에텐 동산 이후 나타난 두 번째의 소집단은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8명의 소집단이다. 하나님은 이 소집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셨다. 당시는 폭력과 무질서의 세계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소집단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라는 소집단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셨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은 소집단의 형태의 필요성에 가장 먼저 눈을 뜬 한 사람을 소

47) 창 2:18.

개한다. 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다. 이드로는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모세에게 건의한다.<sup>48)</sup> 모세가 수용한 열 명이라고 하는 소집단은 열 명이라는 소집단 단위가 백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위해 필요함을 인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집단의 형태였다. 하지만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할 만한 소집단이 구약성경에 등장한다. 엘리사 소집단 공동체가 그것이다. 엘리사는 자신을 따르는 생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켰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소집단 리더였다. 특히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일 것을 명하자, 한 생도가 야등덩굴에서 들외를 따서 그것을 찢어 국을 끓여 먹었다는 기사가 나온다.<sup>49)</sup> 이는 그들이 소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 공동식사를 했음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한 열왕기하 6장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서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각각 한 재물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sup>50)</sup>는 기사를 통해 보더라도, 엘리사와 생도들이 공동 거주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여러 생도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선지자 직책을 위임하고자 소집단으로 모아 그들을 훈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ii. 신약에 나타난 집단상담

구약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도 여러 집단상담 모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가 이끌었던 제자 소집단과 초대교회의 모임 중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 소집단은 대표적인 소집단이다.

48) 출 18:21-25.

49) 왕하 4:38-41.

50) 왕하 6:1-2.

먼저 예수가 보여 주신 소집단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예수의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그룹이 있었다. 70명의 대그룹, 12명 내지는 3명의 소집단, 여인들의 소집단. 이 중 예수 제자 소집단의 기본적인 형태는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사도들이다. 예수는 이 12명의 제자공동체와 함께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진솔한 모든 모습을 보여 주셨고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예수는 12제자로 구성된 소집단을 훈련하고 양육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막 3:13-14).

우리는 여기서 소집단사역의 시작과 아울러 소집단의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성공적인 소집단을 시작하기 위해, 최초 소집단 구성 시에는 소집단의 리더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만을 선택해 모으는 사실과 소집단의 리더는 반드시 소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소집단이 역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 제자 소집단에서도 소집단의 역동성이 나타난다. 그 소집단에서 때로는 제자들간의 반목질시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예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것이다(막 10:35-45). 여기서 예수는 소집단 리더가 남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룹 구성원을 섬기는 직책임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다(막 10:45). 뿐만 아니라 예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에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을 데리고 가셨다. 소집단 안의 또 다른 작은 소집단을 만드시고 활용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는 소집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소집단의 장점들을 이용하신 탁월한 소집단 리더였음을 알게 해 준다.

예수와 관련된 여러 소집단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소집단의 형태는 초대교회들에서도 발견된다. 가정 교회 소집단이 그것이다. 구약시대 노아와 그 가족, 아브라함과 그 가족처럼 신약시대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 교회 소집단이 나타난다.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탄생한 예수살렘 교회는 가정 소집단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함께 성전에 자주 모이기도 하였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가정에서 보이는 소수의 소집단에 참여했다(행 2:42, 46-47).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 몇 개의 가정 교회 소집단이 존재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정 교회들이 존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 교회 소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였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여러 지방 교회들도 가정 교회 소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오늘날 빌딩과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등은 다 가정 교회로 존재했다. 초대교회들은 오히려 가정 교회와 활동 센터와 같은 매우 기동성이 높은 형식을 통하여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구약시대 여러 소집단처럼, 대그룹의 모임뿐만 아니라 비교적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였고, 그러한 소집단은 가정 단위로 모여 생활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소집단은 바로 가장 성경적인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도 구약 및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소집단을 필요로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좀 더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회 소집단 체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대그룹 모임과 아울러

대그룹으로만 모였을 때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소집단의 친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 ② 집단상담의 교회사적 근거

집단상담은 기독교 상담의 한 방법으로서 그 기원을 성경과 교회 역사와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성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고하며 또 그들이 새롭게 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를 통해 훌륭한 상담자의 모습을 살필 수 있고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만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심리적, 영적 필요를 위해 부름 받음을 볼 수 있다.<sup>51)</sup>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교회 지도자들은 치료, 유지, 인도, 화해 등의 목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일반집단상담의 기원은 지금 여기의 체험, 목회공동체, 경험적 신비주의, 상호 돌봄, 회심마라톤, 그룹책임지도, 영성훈련 그룹, 개인간증 등을 강조한 17세기와 18세기 개신교와 유대교 경건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52)</sup> 이들은 소집단을 통하여 공동체의 신앙적 삶을 부흥시켰는데, 급진적인 행동변화를 유발시키는 강렬한 감정을 영적으로 깊게 일으켰다. 1675년 스페너(P. J. Spener)는 피아 데시데리아(*Pia desideria*)라는 책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썼고, 바로 거기서 그는 심도 있는 대화와 상호 돌봄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적 성장을 도모하는 소집단을 모집하였다.<sup>53)</sup>

스페너는 소집단 속에서 논쟁이나 토의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51) Gary R. Collins, *Helping people grow: practical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ing*, 정석환 역, 《카운셀링가이드》(서울: 기독교지혜사, 1992), p. 16.

52) Thomas C. Oden, *The Intensive Group Experienc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p. 56.

53) 위의 책, p. 79.

더 중요시한 공동 책임성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종교적 신앙이 더욱 촉진되기를 시도했다. 이런 스페너의 소집단은 평신도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직의 구체적 실천과 행동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인적 인간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운동은 유대교와 개신교에 평행성을 이루며 계승되었는데, 하시딧 유대주의의 창시자인 바알(Baal) 쉘과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Wesley)에 의해서였다. 이들도 교회 전통 속에 있는 힘에 매료되었는데 바알 쉘은 유대 종교적 삶을 부흥시키고 치료자와 권위 있는 교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웨슬리는 복음의 부흥으로써 알려진 영국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게 되었다. 특히 육체와 치유에 관심을 갖고서 깊고 민주화된 종교경험을 찾았던 대중적 운동을 일으켰다.<sup>54)</sup>

웨슬리는 평신도들의 소집단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며, 세 달에 한 번씩 세부적으로 구성된 소모임에 참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즘 집단상담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밴드(The Band)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동안 자기가 어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으며 유혹을 받았는가 자기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권면하였다. 이 모임은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어 관리하고, 진행은 먼저 리더가 자신의 경험과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 후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한다.<sup>55)</sup> 웨슬리는 그룹 내에서 신앙생활에서의 개인차를 중시하고, 평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의 연구에서 찾았는데 웨슬리는 자신의 목회사역에서 열성적인 복음주의와 사회적 관심, 다양한 그룹경험 등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웨슬리 소집단 운동을 치유그룹으로 바꾼 것은 동료 심리치료그룹(The Peer mutual

54) 위의 책, p. 82.

55) 위의 책, p. 301.

Self-Help Psychotherapy Groups)이었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옥스퍼드 그룹(Oxford Group)에서 유래된 것이 금주단체(Alcoholics Anonymous)이다. 이 단체는 공통적으로 사회화, 책임감, 높은 기준, 솔로건이나 경구 사용, 비전문적인 리더, 솔직한 자기 노출, 활동프로그램, 모델제시 등을 강조한다.<sup>56)</sup> 그리고 이들은 자기진단, 문제의 발견, 문제에서의 회복, 그리고 옥스퍼드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는 신념도 갖고 있었다.<sup>57)</sup>

### (3) 집단상담의 목표

집단상담의 목표는 집단상담의 이론적 배경과 각 학파들이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코레이(Corey)는 상담목표를 그 나름대로 학파들로 분류하였으며,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sup>58)</sup> ①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학습하기 위한 것, ② 자기 자신에 대한 일치된 자아 정체감을 개발시키는 것, ③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적 욕구와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④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수용, 자기 신뢰,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증진시키는 것, ⑤ 정상적인 발달상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제반 갈등 문제들을 해결할 때 차선책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⑥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인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딕크메이어(Dinkmeyer)는 다음과 같

56) Gary R. Collins, 《카운셀링가이드》, pp. 305-307.

57) 위의 책, p. 304.

58) G. Corey, *Theory &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 1981), pp. 385-86.

59) D. C. Dinkmeyer & J. J. Muro, *Group Counseling: Theory & Practice* (Itasca ILL: F. E. Peacock Publishers Inc., 1979), p. 62.



이 주장했다.<sup>59)</sup>

① 집단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도록 돕고 자아 정체성의 탐색을 지원하는 것, ② 보다 더 증진된 자기 수용과 자기 가치에 적합한 느낌을 개발하도록 하여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알도록 하는 것, ③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적 과제나 사회적인 여러 유형의 과제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응 기술 및 대인관계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④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민하게 알도록 돕는 것, ⑤ 자기가 믿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이러한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야롬(Yalom)은 이와 같이 복잡하게 나열된 목표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담목표를 12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유사한 것들을 동질의 것으로 묶어 처리한 후 그 빈도수에 따라서 목표를 선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성을 재조정, 재정립시키는 것이다.<sup>60)</sup>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담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예가 많다. 즉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아상(ideal self)과 혼동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현실보다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둘째, 자기 자신의 능력과 제한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행동을 하는 것은 압에 의한 것보다는 느낌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즉 행동은 인지적 사고보다도 감정적, 정서적 자극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에게 일어나는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느끼게 하고 그것을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집단상담을 통하여 각 구성원들은 사람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며, 언어적 표현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진의가 어떠한 것이며, 각 사람에 따라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넷째,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상담 중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좌절감들을 진술하는 동안 구성원들은 이러한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겪어 왔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알게 된다.

#### (4) 집단상담의 장점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다. 즉 집단상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오늘날처럼 상담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에서 더욱 집단상담이 요청된다. 그러나 집단상담의 진가는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다.

첫째, 집단상담 관계는 성인 상담자와의 1대1의 관계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편

60) I. D. Yalom, *The Theory &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Inc., 1970), p. 69.

대면의 관계에서보다는 동료 집단에서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쉽게 상호간에 마음 문을 열고 수용할 수 있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집단상담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비난이나 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행동에 대하여 현실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의 분위기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닌 안전적이며 새로운 행동을 실험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상담에서는 동료들 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집단상담은 성원들에게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그래서 개인상담에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학습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집단상담은 지도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개인상담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 개인상담에서는 단 한 사람의 상담자만 있을 뿐이지만 집단상담에서는 지도자와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집단상담에서는 한편으로는 개인이 계속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고통이나 위협을 느낄 때에는 물러서서 관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행동을 경청하고 관찰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느낌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일곱째, 집단상담은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의식하게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sup>61)</sup>

셰르처 & 스톤(Shertzer & Stone), 김슨 & 미첼(Gibson & Mitchell)은 집단상담의 이점으로 네 가지를 열거하였다.<sup>62)</sup> 첫째, 상담자의 영향력

이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 둘째,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셋째, 자신의 이해는 물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며 적극적으로 자연적인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개인상담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기타 구성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하워드 클라인벨은 집단상담은 교회로 하여금 교인들의 전체적인 성장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인간적인 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며, 또한 다양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삶을 돕는 교회의 직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집단상담 방법은 목회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창조적 발전을 가져온 가장 유명한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sup>63)</sup>

그는 집단상담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목회상담이 소집단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한 사람의 신자를 돕는 시간에 5명 내지 15명을 동시에 도울 수 있으므로 그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제를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셋째, 집단상담은 내담자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수립하므로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다. 효과적인 집단에서는 그 집단이 전체적으로 치료와 성장의 도구가 되며 집단상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이라는 것이 넷째, 집단상담은 집단 전체를 집단정신으로 훈련하게 한다. 다섯째, 집단상담의 방법은 공식적으로 상담을 위해서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전을 자극시켜 주는 데 활용된다.

62) 김근근, “정의적 집단경험이 중학생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1983), p. 12에서 재인용.

63)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신론》(서울: 장로교출판사, 1987), p. 541-543.

61)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p. 17.

그러므로 집단상담은 오늘날의 화해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탐구와 함께 그 속에 상호 관련된 소집단의 치유적인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집단상담은 교회로 하여금 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집단상담은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는’ 그의 필수적인 기능을 성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들의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한다.<sup>64)</sup>

안덕자는 집단상담과 인간 잠재력과의 관계연구에서 집단상담의 경험이 자아실현성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 미친다고 하였다. 즉 집단상담의 경험이 현재 중심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적 지향적으로 삶의 결단능력을 갖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sup>65)</sup>

## (5) 집단상담의 과정

집단상담은 시작 단계, 탐색 단계, 문제해결 단계, 종결 단계의 4단계로 진행된다.

### ① 시작 단계

집단의 초기 단계는 연극의 서막과 같아서 그 내용이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상담자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면담을 통하여 개별 구성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집단상담 첫 시간에는 집단의 목표를 분명히 규정하고 서로 친숙해지는 동시에 상담자는 구성

원들이 그 시간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 내용을 민감하게 알아야 한다. 이 단계의 상담자는 상담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책임이 있다. 상담자는 각 구성원들의 말을 깊이 듣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기문제를 공개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이 참여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sup>66)</sup>

첫 모임의 마지막 15분 정도는 종결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 두어 상담자는 구성원들에게 첫 시간에 느낀 것을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 몇 분 동안 모임에서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구성원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상담자는 집단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행동해야 하며 상담자 자신의 희망과 목표를 집단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 ② 탐색 단계

탐색 단계에서의 주요과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망설임이나 저항, 방어 등을 지각하고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성공 여부는 주로 상담자가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수용적이고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이며 상담기술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정상 특성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성으로는 집단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저항이 표면화된다. 구성원은 집단에 참여하기 전에 은연중에 지도자가 주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담자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된다.<sup>67)</sup> 따라서 상담자는 집단상담에서 집단의 지도자가 집단의 문제에

64) 위의 책, p. 225.

65) 안덕자, “집단상담을 통한 인간 잠재력 개발과 종교성과의 관계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p. 59.

66)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p. 96.

67) 위의 책.

대하여 어떤 해답이나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구성원에게 알려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으로 상담자 자신이 반드시 집단에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구성원들이나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존과 저항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뤄가면서 탐색단계에서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학습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이고 정당하게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적절한 감정표현을 시도함으로써 적절한 감정 표현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반면에, 맹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해 온 사람들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음으로 그들의 주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결과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고 의견교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택한 입장을 명백히 할 수 있고, 타인의 공격과 압력을 참는 것을 배우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좀 더 절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체득할 수 있다.<sup>68)</sup>

### ③ 문제해결 단계

집단이 문제해결 단계에 들어서면 구성원들은 집단을 신뢰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공개한다. 또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져와 활발히 논의하며 바람직한 관점과 행동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상담자는 구성원들이 대인관계를 분석하고 문제를 다루는 데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구성원

들이 높은 사기와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sup>69)</sup> 이 단계에서 구성원들은 ‘우리 집단’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구성원들이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련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집단에 와서 문제해결을 매듭짓기 위해 스스로의 결정을 보류하기도 한다.

### ④ 종결 단계

집단상담의 종결 단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담자와 구성원들은 집단과정에서 배운 것을 미래의 생활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구성원 각자의 첫 면접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한 후,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있다면 상담자는 종결을 준비한다. 종결이 가까워지면 구성원과 언제 상담을 끝낼 것인가 토의를 하며 결정한다. 때에 따라서 점진적인 종결이 제안되기도 한다. 즉 매주 만나던 집단이 2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횟수를 늦추어 가다가 마치는 과정이다.

상담자는 집단상담의 전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행동에 대한 자기통찰을 향상하도록 훈련시켜야 하지만, 특히 종결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원리는 집단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또 적용해야 한다는 점과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집단상담의 경험은 구성원들이 집단상담을 종결한 이후라도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나 경쟁보다는 조화를 추구하고, 감정의 발산보다는 절제를 통하여 자신의 수양과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68) James C. Hansen, *Group Counseling: Theory & Process*, 김현수 외 2인 역, 《집단 카운슬링》(서울: 지구문화사, 1984), p. 396.

69)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p. 98.

## 2) 구조변화이론

교회가 구조적으로 목표로 설정한 이상에 도달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효과 있게 제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변화이론이다.

군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무감각한 기존신자들의 사고의 틀을 바꾸어 그리스도의 자비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필자가 이상적 상황으로 설정한 일, 즉 부적응 병사들이 치유 받고 회복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친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형성하며, 평신도 사역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교회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변화이론을 도입하였다. 이 변화이론을 통하여 세 가지 장애요소인 군대에서 부적응 병사들을 적응케 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문제, 계속적인 섬김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의 부재 문제, 지휘관의 교회 사역에 대한 무관심 문제가 제거되어 군선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 (1)해빙 단계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래식 스타일에 굳어져 있는 상태를 해빙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 변화를 이루기 위한 최초의 단계로 지역과 교회와 성도의 상황을 분석하고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목표인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월리(Robert C. Worley)는 교회 활성화 과정을 첫째로 비전의 형성, 둘째로 정보수집 과정, 셋째로 목표의 설정과 우선순위 개발 과정, 넷째로 계획수립 및 실행 과정, 다섯째로 공개적 평가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sup>70)</sup> 이 해빙의 단계에서는 이 중에서 비전의 형성과 정보수집 과정, 목표의 설정과 우선순위 개발 과정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일까? 왜냐하면, 비전이 리더를 이끌기 때문이다. 비전은 과녁의 색깔을 정한다. 불꽃을 튀기며 불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것을 앞으로 끌어 낸다. 또한 비전은 목회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길을 밝히는 불과 같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의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함으로 함께 변화의 행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두고 존 맥스웰(John C. Maxwell)은 그의 책 《탁월한 리더의 성공원칙 21》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전이 가져다 주는 혜택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유인하고, 도전을 주며, 하나로 뭉치게 한다. 재정은 물론 다른 자원 또한 끌어모은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비전에 도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한 자들은 더 열심히 싸움을 하게 된다.<sup>71)</sup>

그러나 여전히 신자들 중에 일부가 이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크레이그와 월리(Robert H. Craig & Robert C. Worley) 교수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활성화 방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크레이그와 월리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소극적인 응답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비참한 지상적 삶이 끝난 이후에 도래할 축복스런 내세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들

70) Robert C. Worley, *A Gathering of Strangers: Understanding the Life of Your Church*, 황화자 역, 《다원화 사회와 목회》(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pp. 119-123.

71) John C. Maxwell, *The 21 Indispensable Qualities of a Leader*, 전형철 역, 《탁월한 리더의 성공원칙 21》(서울: 도서출판 청우, 2000), p. 245.

어 있음을 가르침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2)</sup>

따라서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 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2개월 전부터 매주 주일 낮 설교 시 비전 캠프에 이론적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치유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하였다. 교회에서 비전을 만들기 위한 가장 큰 힘은 설교에 있다고 본다. 설교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깨달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한 의지적인 결단도 일어난다. 이 메시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역설하였고,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세적인 축복과 지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도래할 축복스런 내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전 성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저녁예배를 이용하여 세미나를 가졌다. 그래서 군 안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비전 캠프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비전 캠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2) 변화 단계

변화의 단계에서는 비전 캠프를 통해서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의 실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그룹 이론과(The Theory of Small Group)과 그룹(Thomas H. Groome)의 교육 이론을(Shared Praxis) 통하여 변화를 실천하고자 한다. 소그룹 이론은 앞으로의 교회를 새롭게 할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핵심이었다. 소그룹은 “서로 작용하고 서로 의존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공동의 관심사

72) 김귀현, “군인교회 신우회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목회학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맥코믹신학교, 2002), p. 17에서 재인용.

를 나누고, 각자에게 규정된 역할 행동에 참여하고,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둘 이상”이라고<sup>73)</sup> 정의할 수 있다.

소그룹은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리이드(C. Reid)는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자유의 분량의 변화에 따라 소그룹의 성장 단계를 설명하였다. 첫 단계는 모임의 시작 단계로 지도자에 대한 의존의 단계(의존), 두 번째는 구성원의 자유에 대한 저항의 단계(자유에의 저항), 셋째는 이 자유를 의식할 때 나타나는 반항의 단계(십대의 반항), 넷째는 구성원이 독립을 선포할 때 지도자의 축하와 독립이 있는 단계(축하와 독립), 마지막은 자유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성의 인식으로 인한 지도자와의 상호의존하는 단계(상호의존)로 전개된다.<sup>74)</sup>

소그룹의 운영 방법은 약속을 맺게 하여 서로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리더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소그룹 이론은 비전 캠프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비전 캠프 안에서 병사들이 각자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다른 병사들에게 도움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조장 도우미 병사들을 위해서 소그룹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했고, 비전 캠프 운영 시 3개 그룹으로 조직하였다.

그룹은 전체 교회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그런 다음 성령의 임재에 의한 은총을 옷입는다는 가정을 할 때,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가르침과 학습이 지니는 세 원천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교회 당국의 가르침과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연구, 사람들의 식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의 이 세 가지 원천 중 어느 것도 분

73) 유병호, “부부 신앙교육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미간행 목회학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p. 23에서 재인용.

74) Clyde Reid, *Groups Alive—Church Alive*, 고용수 역, 《성숙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운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p. 79–93.

명 다른 것들과 고립하여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75)</sup> 그는 뜻을 나누어 참여하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행동을 말한다.<sup>76)</sup>

1. 참가자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심 주제에 관한 그들 자신의 행동을 명명하기 위하여 초대된다(현재의 행동).
2.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어찌서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있을 수 있는 결과들 또는 의도되고 있는 결과들은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초대된다 (비평적 성찰).
3. 교육가는 현안의 중심 주제에 관한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그것이 요청하는 신앙적 응답을 그룹에게 제시한다(기독교의 이야기와 그의 비전).
4. 참가자들은 기독교의 이야기를 그들 자신의 이야기들과의 변증법 속에서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초대된다(기독교의 이야기와 일반 이야기들 사이의 변증법).
5. 미래를 위한 개인적인 신앙 응답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된다(기독교의 비전과 일반 비전들 사이의 변증법).

이러한 그룹의 교육 과정 이론은 신앙의 권위를 과거의 전승과(학습자의 현재 및 미래 경험의 규범과 원리를 성경 및 전통 신학과 기독교 교리들로부터 산출한다) 현재의 경험(학습자 상황에서 경험되는 현재 경험들을 교육과정의 자료 및 내용들로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에 둔 입장과는 달리 미래의 소망에 기독교교육의 권위를 두고 있다. 그룹은 하나님 나

75)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9), p. 294.

76) 위의 책, p. 299.

라를 중요한 교육 주제로 다루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책임감과 더불어 소망으로 도전한다고 본다.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함을 받는 모든 학습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7)</sup>

이 변화의 단계를 통해서 입소병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함으로 서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체험을 통해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 (3) 재결빙 단계

재결빙의 단계는 계획되어진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안정된 정체성과 행동의 재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 활동을 적용시켜 교회 활성화를 이룬다. 이는 비전이 현실로 드러나는 단계로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행동을 재확립하며 구체적으로 교회와 이웃에 대한 참여와 섬김으로 활용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수동적이다. 재적 교인의 5%는 열심이고, 15%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중간 60%는 이끌리는 사람들이고, 20%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윌리(R. Worley)는 “교회의 활성화란 활성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어떠한가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다.<sup>78)</sup>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세상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헌신케 도와

77) 임창복, 《기독교교육과 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p. 50에서 재인용.

78) Robert C. Worley & Robert H. Craig, *Dry Bones Live*, 강형길 역, 《목회 활성화 방안》(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 48.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본 교회는 ‘비전 캠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기에서 비전 캠프 운영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했고, 또한 각종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진행케 했다. 또한 각 직할대 군종병들과 집사들로 비전 캠프 도우미로 임명하여 비전 캠프의 내용과 효과적인 상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해빙의 단계와 변화의 단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남을 볼 수 있으나 아직 재결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함을 발견해 본다. 아직 비전 캠프 이름도 조금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요,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는 평신도 리더십에 있다. 종종 해빙의 무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그의 백성을 활성화할 책임이 있다.

## 4. 논문의 특성과 결론

### 1) 특성

이 논문의 의의 혹은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시행했다는 점이다. 군대는 때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고 일정한 과업을 이루기 위한 명령과 통제가 따른다.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해 활동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활성화

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둘째, 본 논문은 ‘N(Network)세대 또는 나(Na)세대’라 부르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국가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군대라는 현장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적응으로 자살까지 하며 힘들어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응답이다.

셋째, 필자는 본 연구에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다른 종교 병사들까지 대상으로 비전 캠프를 진행함으로 진정한 자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힘을 쏟았다. 이것은 군선교를 위한 새로운 지평의 확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히 군대 안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선교 전략이 비전 캠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2)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비전 캠프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교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있는 구역제나 남녀선교회의 모임은 일 중심으로 전락되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사람 중심의 비전 캠프는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며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이것은 후에 신앙생활로 이어진 경우도 자주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자 스스로에게 비전 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군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군에 들어와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군인 교회들을

거치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만났다. 그러나 늘 부대에서 원하는 일과 교회 고유의 사역들을 수행하면서 늘 일 때문에 힘에 겨워했고, 숫자에 연연하는 등 늘 여유가 없는 나날이었다. 그러면서 차츰 탈진해 갔으며 ‘군선교는 민족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선교로 그야말로 황금어장, 가두리 양식장, 못자리이다’라고 외쳤던 처음의 순수한 열정도 차츰 식어 타성에 젖어 있던 필자에게 비전 캠프는 군선교에 대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보게 했고, 한 생명 한 생명 출산의 기쁨을 주었던 경험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이 시대의 변화자로서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거대한 세상의 수레바퀴 축이 되어, 교회의 구 성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 이 세상을 치유하며, 군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꿈꾸어 본다.